

韓日石油情報協議會의 뒷골목

金 容 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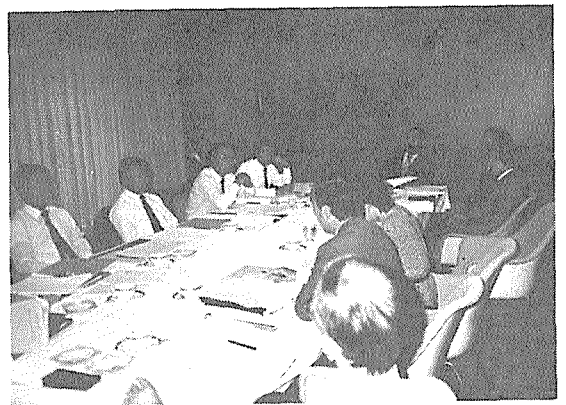
(京仁에너지 업무부 과장)

지난 9월 21일 日本 東京의 經團連會館에서 개최된 제 3차 韓·日石油情報協議會 개막연설에서 日本石油連盟 후쿠사와부회장은 첫마디에 오늘의 日本石油政策은 큰 전환기에 서 있다고 단언하므로써 처음부터 우리 한국측 대표들을 긴장시켰다. 따라서 회의 벽두에서 우리측의 최대관심사항은 이러한 변화가 무엇이며, 日本石油産業은 이 변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리측의 모든 귀를 곤두 세우고 질문공세를 퍼는 후끈 후끈한 회의장 분위기를 어루만지고 흥겹게 해준 사람은 이 협의회에 처음 등장한 미모의 재일교포 여성 통역사였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日本석유산업의 현실을 캐고 추리하는 속에서 시종 미소로서, 더러는 실수로서—어떤 때에는 다급한 나머지 혼돈되어 한국인에게는 일본말로 해설하고 저들에게는 우리말로 설명하다가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회의 분위기를 친밀과 화기에애한 속으로 몰아넣어 서로 신뢰속에서 모든 성의를 다 보여준 며칠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협회 黃鎬升부회장님의 지도로 회의의 개시 전날밤, 또 회의가 끝난 후 다음 날 회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의 숙소에 모여 밤늦게까지 숙의하고 정리한 결과 우리측의 조직적인 질의와 중식시간조차도 허용치 않는 진지한 자세로 보다 풍부하고 알찬 내용을 얻을 수 있었으며, 日本石油連盟에서도 이에 보답하듯 최고의 성의를 다하여 우리측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잉정제설비의 처리를 위해 수년동안 약 220만b/d 규모의 정제시설의 감축,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석유회사의 이익률, 극심한 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원매회사의 집약화, 日本 전국에 약 6만개소에 달하는 주유소(Gasoline Stand)등 유통부문 합리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 추진 등 어느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은 없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집중질문공세로 나타났다.



日本 經團連會館 11층 회의실의 제 3차 韓·日石油情報協議會 광경

첫날 日本측이 마련한 만찬에서조차도 Man-to-Man 식으로 질의답변은 계속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측 구성원은 서로 하나가 되고 허심탄회한 의사개진을 나눌 수 있는 친숙한 사이가 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조성에

협회 黃부회장님의 역할 또한 매우 지대하였다고 생각된다.

주야로 회의가 2-3일 거듭된(이틀 회의가 끝난후 필자와 한방에서 묵으신분의 잠꼬대는 日語, 영어, 한국어로 뒤섞여 그 얘기로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음) 다음날(9월 23일)은 유종계도 추분절인 공휴일이어서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東京에서 북쪽으로 약 200여km 떨어진 니꼬(日光)로 하루관광길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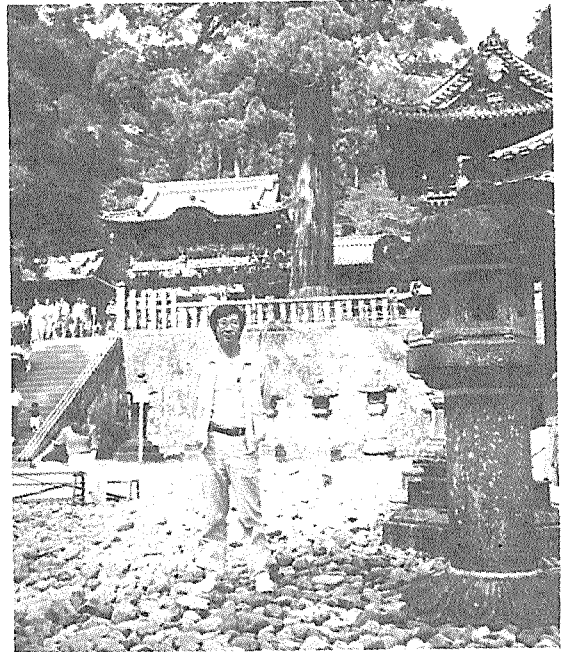
日本은 초행길이며, 비록 며칠밖에 안되었지만, 근로자들중에 노인이 매우 많았다. 택시기사도 노인이 많았고, 큰 건물 수위들도 거의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를 안내한 안내양(?)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키가 작그만 하얀 머리의 할머니였다.

「로맨스카」란 이름이 붙은 직행 관광열차(속도와 시설은 우리나라 새마을 특실과 비슷)를 타고 우리 농촌풍경같은 들과 나무가 백백히 들어 앉아 부럽기만한 산간지방을 1시간40분 달린 끝에 日光역에서 하차하여 관광버스로 日本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중의 하나라는 日光神社에 도착하였다.

제1대 도꾸가와·쇼군의 영묘(靈廟)로서 17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울창한 숲의 바탕위에 황금빛 찬란한 조밀한 건축 조각으로 가득 차있는 절이었다. 그곳 신사에서 또 다음번 방문한 다찌끼 불교식 절에서의 건축물의 화려함, 수려한 경관과 무척 아기자기한 문양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종교 생활도 다분히 주술적이고 祈禱 신앙에 의한 기원만이 전부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으며,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루는 부적판매소, 헌금계와 헌주소(獻酒所)에서 얼핏 갖는 느낌은 「야들은 저들의 신(神)까지 돌받고 판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숙소에서부터 출발하여 정확한 시간에 숙소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편안히 모시는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우리네 관광사업과 비교가 되기도 하였다.

日本의 물가고는 엄청나서 -日本측 직원들과의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에서 그들은 우리의 생활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주택사정, 통근사정, 물가등-대금지급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예 円貨를 원貨의 액면가치와 동일하게 여겨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의견으로 본 日本은 비록 풍요스러웠으나, 다른 측면이 있었다. 밤이면 대로변과 공원에 때절은 이불보따리를 둘러메고 다니는 거리의 천사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銀座거리의 유명한 백화점앞 휴게소에 이접는 깡통찬 거지와 미끈한 멋진 숙녀가 아무 스텝 없이

바짝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은 꼭 초현대 미술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외치고 있는 듯 했다. 반면 고급 레스토랑의 입구에는 「Members Only」라고 쓰여 있으며, Key Card 이외에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아예 문조차 열어 볼 수조차 없는 비공개된 장소였다.



(日光神社 앞에 선 필자)

후답지근한 아침안개속을 헤집고 (필자는 日本의 습기 많은 기후로 다다미방의 당위성을 연상했다) 우동으로 아침을 때운날 오전(9월 24일) 원매사인 出光興産을 방문, 그동안 의문점이었던 자유시장 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유통관계와 특약점 및 주유소와의 거래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활동을 하여 많은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여러 곳의 회의실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모두 매분마다 찰각하는 기계음을 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고장이러니 했는데 여러 곳이 모두 그러하니 회의진행을 위한 시간조절용이라 여겨졌다. 우리네와 같은 끝날 시간 모르는 회의진행에 참고가 될 것 같았다.

出光興産은 심한 판매경쟁을 극복키 위해 제품수송방법 최적화에 역점을 두고, 컴퓨터 모델을 자체개발하여 각지역별 수송수단차이에 따르는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윤극대화 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척 인상적이었

다. 이윤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석유산업이 석유 이외의 사업, 즉 경영다각화를 통한 기업목표달성 노력은 우리 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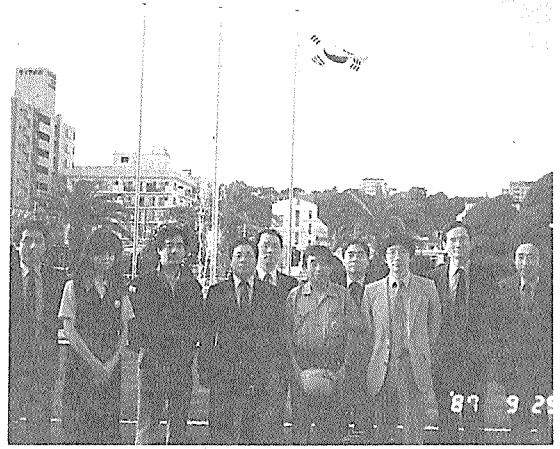
그날 오후에 있었던 日本石油連盟과의 재차회의 내용은 유통업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특히 日本정부는 주유소의 경영난해소를 위해 약 100평미만의 슈퍼마켓 설치를 금년 5월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허용하였다는 정보와 함께 日本 내 주유소 운영상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원매 회사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운영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그러나 石油連盟 실무자는 앞으로는 원매회사 자체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주유소에 대한 지원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日本정부의 입장은 상부구조이든 하부구조이든간에 석유산업 전체에 대해 구조개편을 스스로 경쟁속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체의 정리에 정부가 개입치 않고(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업계 스스로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밤새 비온뒤 요코하마까지 전철을 타고 우리 일행은 컴퓨터처럼 정확한 일기예보 그대로 청명한 금요일 오후 최대정유회사인 日本石油의 네기쉬정유공장을 방문하였다.

공장건물앞에 마중나온 미니버스가 멎는 순간 우리 일행은 몽클한 느낌을 받았다. 행정건물앞 분수대위에 일장기와 함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우리중 한분의 『야 놈들 진짜 손님맞을 줄 아네』하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현황브리핑 시작에서 벌써 日本石油회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공장운영 기본원칙은 대단위 공장답게 첫째, 「안전제일」, 둘째, 日本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인식 즉 평생직장을 느끼게 하는 「사기진작」 그리고 세째는 오늘의 日本석유산업의 당면과제를 대변이나 하듯 「수익성 제고」였다.



(日本石油 네기쉬정유공장 행정건물 현관앞에서)

넓은 정유공장부지를 미니버스로 순회하여 세부시설은 볼 수 없었으나, 철저한 공해관리로 주변환경은 마치 공원 같았고, 매립지여서 그런지 20만톤급 유조선이 정제시설 바로 옆에 접안해 있었으며, 수입 重質油를 輕質化하는 분해시설도 눈에 띄었다.

단 며칠간의 회의와 자료수집만으로 日本석유산업 전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이번 협의회는 日本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을 시기적절하게 탐문하고 많은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데 우선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유경쟁하에서 정제시설의 과잉등 최근 세계적인 현실속에서 존속하기 위하여 日本기업들이 원가절감과 이익제고를 위하여 펼치고 있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여운을 남기고 왔다.

이제 이 협의회도 3회에 이르러서인지 짜임새도 있고 석유협회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양측이 성실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므로써 진지함과 성과가 더해가고 있다는 느낌도 아울러 갖게 하였다.☞

